

전당재단 인사 철회 촉구 ‘묵살’... 민주당 대선 민심 ‘악화’

재단 이사장·사장 인사파행에 여론 들끓는데 문체부 담당자는 영전 지역 정치권·민주당 광주시당, 당 차원에서 문제 해결하라 강력 촉구

아시아문화전당재단(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인사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인사파행의 담당 실무 국장을 최근 타 부서로 영전 발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1월 24일자 인사발령 통지에 따르면 문체부의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A 씨가 해외문화홍보원장에 보임됐다. 직제 상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2급 국장인 반면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 1급에 해당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 인사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인사 파행의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실무 국장을 전보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A씨가 이번 인사로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영전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문화전당재단 신임 경영진 선임과 관련 인사 파행과 무관치 않은 실무 국장을 영전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지역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인사파행의 책임자인 지역문화정책관을 서둘러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발령 낸 것은 ‘사고’를 수수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를 다른 데로 옮겨버린 꼴”이라며 “통상 1급이 가는 자리에 2급 책임자를 영전시킨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6일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에서도 문화전당재단 인사 파행 문제가 거론됐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관심사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시 동남구)은 이날 선대위에서 “광주가 아파트 붕괴 사고로 그렇잖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전당재단 인사 문제까지 겹쳤다”며 “민심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화전당재단을 비롯해 문화전당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회’도 오는 28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인사 파행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민협의회는 지난 2020년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문화전당 등 주체들이 참여해 결성됐다. 시민 의견이 정책으로 수렴되고 실행되는 실제적인 장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26일 인사 철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철회라는 것은 검토단계나 내정단계에서 할 수 있지만 이미 임명된 경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추천인사 면면과 추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아 인사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실종자는 어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16일째를 맞는 26일 오전 소방구조대원들이 잔해물더미에 쌓여 있는 29층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붉은 복장의 구조대원이 콘크리트 잔해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면 위로 떠오른 전남~제주 해저터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서울~제주 고속철도 필요성 언급
 김영록 전남지사, 대선공약 요청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의 반대로 한동안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제주해저터널 사업이 대선을 계기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국토 서남권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교류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미래 초고속시대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 충청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대구경북에서 전남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목포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 등과 함께 촘촘한 철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철도 축을 형성해 경부축에 집중된 수송량을 분산하고 국민의 생활권이 확장되는 한반도 반나절 생활권 실현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지사는 “기상이변으로 공항과 항만 이용이 어려울 때도 안정적인 여객 수송이 가능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세계적인 관광랜드마크로서 세계인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사업이 국가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 전망도 내세웠다. 김 지사는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를 연계하는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면 수도권 중부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의 축이 될 것이다”며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처럼 호남권과 제주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물류비 절감으로 초광역적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모델이 될 것이라 전망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승객 1

명이 1km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기차는 14g에 불과하지만, 항공기는 285g에 달한다”며 “항공 분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은 지난 2007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폭설·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이자 대안으로 고속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전남지사 재임 시절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논란 등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은 항상 역사의 물줄기 바로잡는 역할했다”

한신협, 안철수 후보 인터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호남은 항상 역사의 물줄기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안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당의 호남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회되는 점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당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과거) 생각했던 것이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고,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리면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영남에 기반을 둔 바른정당에 국민통합의 손을 내밀면 오히려 역사적인 시대 정신을 먼저 구현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점이 딱 하나가, 보통 정당 합당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실패한다. 그래서 빨리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제 의도를 충분히 호남 시민분들께 전달을 못 해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못 했었다. 내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주년 엠블럼
 화살표가 원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아 가는 시각적 표현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결같이 독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과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로516(수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대로 603(남동) 20(소문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도상 : 3.8, 고속도로 : 3.7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용미치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